

FIP-2014-0008 (통권 제207호, 2014. 11)

#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변동추이 분석

ISSUE  
PAPER



## Contents

I . 요약 .....	1
II . 검토배경 .....	3
III . 유형별 분석 .....	4
1.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변동 추이 .....	4
2. 공장설립형(Green Field Investment) 투자 추이 .....	5
3. M&A형(Brown Field Investment) 투자 추이 .....	6
4. 공장설립형 및 M&A형 투자 비중 비교 .....	7
IV . 기간별 분석 .....	8
1. 1980년대: 직접투자 정체기 .....	8
2. 1990년대: IMF 외환위기 및 외국인투자 성장 .....	13
3. 2001년 이후: 외국인투자 정체, 직접투자 역조현상 .....	18
V . 정리 및 시사점 .....	25
1. 주요 내용 정리 .....	25
2. 시사점 .....	30

- FKI Issue Paper는 경제 및 정치·사회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자료는 본회 경제정책팀 강수정 선임조사역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3771-0408    FAX : 02-6234-5306    E-mail : neco @fki.or.kr

## 주요 용어 설명

▶ [해외직접투자, Oversea Direct Investment]

주식투자 등이 아니고 상대국에 직접 공장을 짓거나, 회사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해외에 투자하는 것

▶ [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경영참가, 기술제휴 등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

▶ [공장설립형 투자, Green Field Investment]

외국자본이 투자대상국의 용지를 직접 매입해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방식의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생산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투자를 받는 국가 입장에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큼

※ 현대기아차의 미국 공장 투자,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 투자 등이 대표적 사례

▶ [M&A형 투자, Brown Field Investment]

외국자본이 이미 설립된 기업을 사들이거나 현지 기업과 합작하는 방식의 투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인력·생산 라인 등의 기업 확장이 가능

※ 상하이기차의 쌍용차 인수, 시노캠의 인천정유 인수, GE캐피탈의 현대캐피탈 인수 등이 대표적 사례

▶ [직접투자 역조현상]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규모는 줄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은 급증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지속되는 현상

## I. 요약

### □ 공장설립형 및 M&A형 투자 변동추이

- (1981년~1990년) 공장설립형(Green Field) 투자 중심,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는 100% 공장설립형이었음
  - \* 해외투자 공장설립형 비중(금액): '81년 100%(0.6억 불) → '85년 94%(1.1억 불) → '90년 89%(10.7억 불)
  - \* 외국인투자 공장설립형 비중(금액): '81년 100%(1.5억 불) → '85년 100%(5.3억 불) → '90년 100%(8.0억 불)
- (1991년~2000년) IMF위기 이후 M&A형(Brown Field) 중심 외국인직접투자 급증, 해외직접투자는 큰 변화없음
  - \* 해외투자 공장설립형 비중(금액): '91년 93%(13.2억 불) → '95년 96%(32.3억 불) → '98년 91%(48.0억 불) → '00년 92%(52.9억 불)
  - \* 외국인투자 공장설립형 비중(금액): '91년 100%(14.0억 불) → '95년 99%(19.7억 불) → '98년 43%(88.6억 불) → '00년 81%(152.7억 불)
- (2001년~2013년) 외국인투자 정체, 해외투자는 중반이후 성장세를 유지하며 직접투자 역조현상 발생
  - \* 해외투자 공장설립형 비중(금액): '01년 96%(53.6억 불) → '05년 85%(73.2억 불) → '10년 70%(246.3억 불) → '13년 78%(294.8억 불)
  - \* 외국인투자 공장설립형 비중(금액): '01년 77%(112.9억 불) → '05년 54%(115.7억 불) → '10년 85%(130.7억 불) → '13년 66%(145.5억 불)

### □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변동추이

- (1981년~1990년) 직접투자 정체기,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 성장률은 높으나 투자금액은 연 10억 불 이하 소규모
  - \* 해외투자: 대기업(투자비중 86%)의 제조업(1차 금속 및 금속가공) 및 광업을 중심으로 성장, 비대기업은 1억 불 이하 소규모
  - \* 외국인투자: 제조업(전기·전자, 화공 / 투자비중 56%) 및 음식·숙박 업종을 중심으로 성장
- (1991년~2000년) 외국인직접투자 성장기, IMF위기 이후 제조업(화공),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급성장
  - \* 해외투자: 대기업(투자비중 70%)은 제조업(전자·부품)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성장, 비대기업(투자비중 30%)은 제조업(의복, 가죽, 신발 등 봉제분야)과 도·소매 업종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
  - \* 외국인투자: 제조업(화공, 전기·전자 / 투자비중 51%)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성장, 특히 IMF 외환위기 영향으로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 및 M&A가 활발해지며 1997년도에만 투자금액이 전년대비 117%로 급증

- **(2001년~2013년) 외국인직접투자 정체기, 글로벌화에 따른 국내기업 해외진출 활발 및 외국인의 제조업 투자비중 감소**
  - \* 해외투자: 대기업(투자비중 78%)은 제조업(전자부품), 광업(에너지 공기업 주도),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투자규모가 급증하였고, 비 대기업(투자비중 22%)은 제조업(전자부품, 봉제분야)과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성장
  - \* 외국인투자: 연평균성장률 2%로 정체, 제조업(전기·전자 / 투자비중 34%)과 금융·보험(투자비중 20%) 업종 중심

## □ 결론 및 시사점

-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 90년대 제조업(50%), 도·소매업(24%) → 2000년대 제조업(31%), 광업(24%), 금융·보험(14%) 변화**
  - 2013년도 대기업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제조업 32%, 광업 20%, 금융·보험업 27%로 비제조업 분야에서 크게 증가
  - \* 비대기업의 경우 80~90년대 의류·가방 등 봉제분야 및 도·소매업중심에서 2000년대 전자부품 및 부동산·임대업 중심
- **외국인투자 양적(성장률 정체)·질적(제조업 비중 감소 등) 저하 → 국내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저해 우려**
  - 외국인직접투자 연평균성장률 '81~'90년 20% → '91년~'00년 30% → '01년~'13년 2%
  - 외국인직접투자 가운데 제조업 비중은 1980년대 56%에서 2000년대 34%로 감소, M&A형 투자금액 및 비중도 증가
  - \* 외국인직접투자의 제조업 비중: 1980년대 56% → 1990년대 51% → 2001년 이후 34%
  - 비제조업 비중: 1980년대 44%(음식·숙박 중심) → 1990년대 49%(도·소매 중심) → 2001년 이후 66%(금융·보험 중심)
  - \* 지난 33년간 외국인직접투자 가운데 M&A형 누적투자금액은 602.4억 불(비중 28%), 해외직접투자 가운데 M&A형 누적투자금액은 555.7억 불(비중 22%)로 외국인의 M&A형 투자 규모와 비중이 높은 상황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국내기업 투자환경 개선 필요**
  - 투자이민제 도입 검토, 국내투자 외국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수도권 규제 완화 등 투자저해 규제 개선
  - 비제조업(서비스, 금융, 물류, R&D 등) 분야 진입규제 등을 해소하여 외국인의 적극적인 국내투자를 지원
  - 유턴기업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지주회사 등)를 통해 우리기업의 국내투자를 유도
  - 국내기업의 미래 국내투자(R&D센터, 복합빌딩 등 랜드마크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정책적으로 지원

## II. 검토배경

### □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Overseas Direct Investment) 규모 증가세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세계경제 침체 및 글로벌 시장경쟁 심화, 인건비·원료비 등 생산원가 절감 압박 등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ODI)는 지속적으로 확대, 2013년 기준 2000년도 대비 약 4배 수준으로 성장
  - \* '00년 52.9억 불 → '05년 73.2억 불 → '10년 246.3억 불 → '13년 294.8억 불(투자기준)

### □ 반면, 최근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성장은 부진

-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인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확대, 조세감면,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정책마련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2000년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음
  - \* '00년 157.2억 불 → '05년 115.7억 불 → '10년 130.7억 불 → '13년 145.4억 불(신고기준)

### □ 직접투자 역조현상 지속으로 국내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저해 우려

- 직접투자 역조 심화 시 국내투자 및 해외수출 유발 효과 감소, 일자리 창출 저해 등 부정적 영향 예상
  - \* 제조업체 해외직접투자 1% 증가 시, 국내 제조업 종사자수 0.01% 감소, 설비투자 0.08% 감소(한국은행, 2013년)
  - \* 해외직접투자의 수출유발효과(수출금액/투자잔액)는 '08년 192.7% → '12년 166.7%로 감소, 수입유발효과(수입금액/투자잔액)는 105.8%로 2.7% 증가, 수출이 유발하는 취업증가 수는 연간 600만 명(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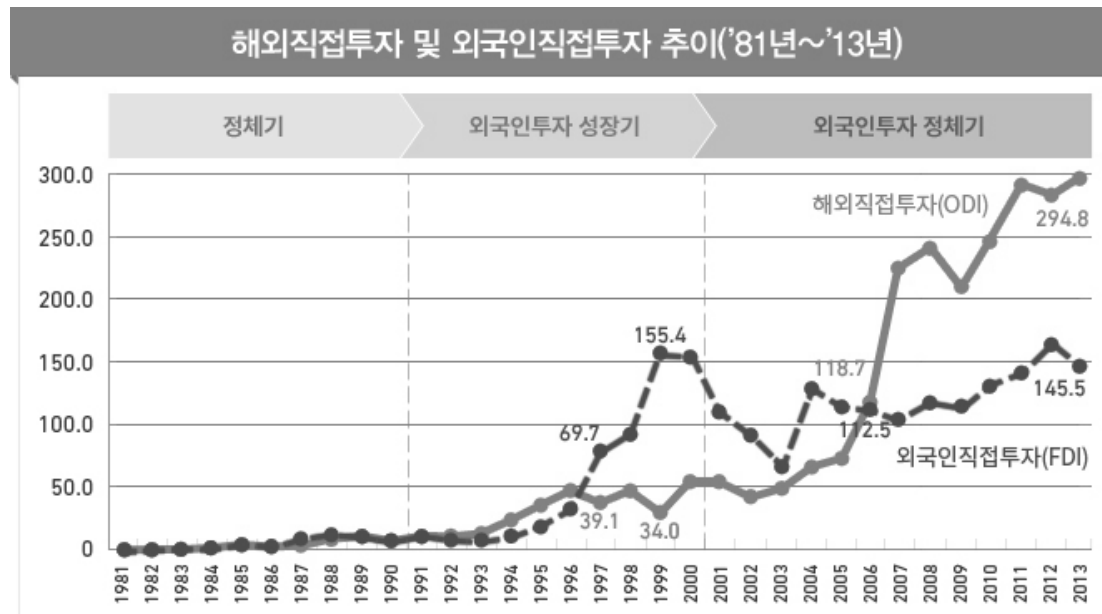
### □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형과 산업별 비중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 1981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변동 추이를 살펴보고, 규모별·업종별 투자 유형과 그 비중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 해외직접투자 통계는 1981년부터 확인 가능,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는 1962년부터 확인가능하나 연 1억 불 이하로 금액이 낮아 생략

### Ⅲ. 유형별 분석

#### 1.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변동 추이

- (1980년대) 해외직접투자(투자금액) 및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금액) 규모의 성장이 거의 없고 정체된 상태 지속
- (1990년대) 해외직접투자는 연 50억 불 이하, 외국인직접투자는 IMF 이후 급증해 1999년 155.4억 불 기록(해외직접투자의 4.5배)
- (2001년 이후) 국내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로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외국인직접투자는 정체, 2006년에는 직접투자 역조 현상(해외투자>외국인투자) 발생, 2013년에는 해외직접투자 294.8억 불로 외국인직접투자(145.5억 불)의 2배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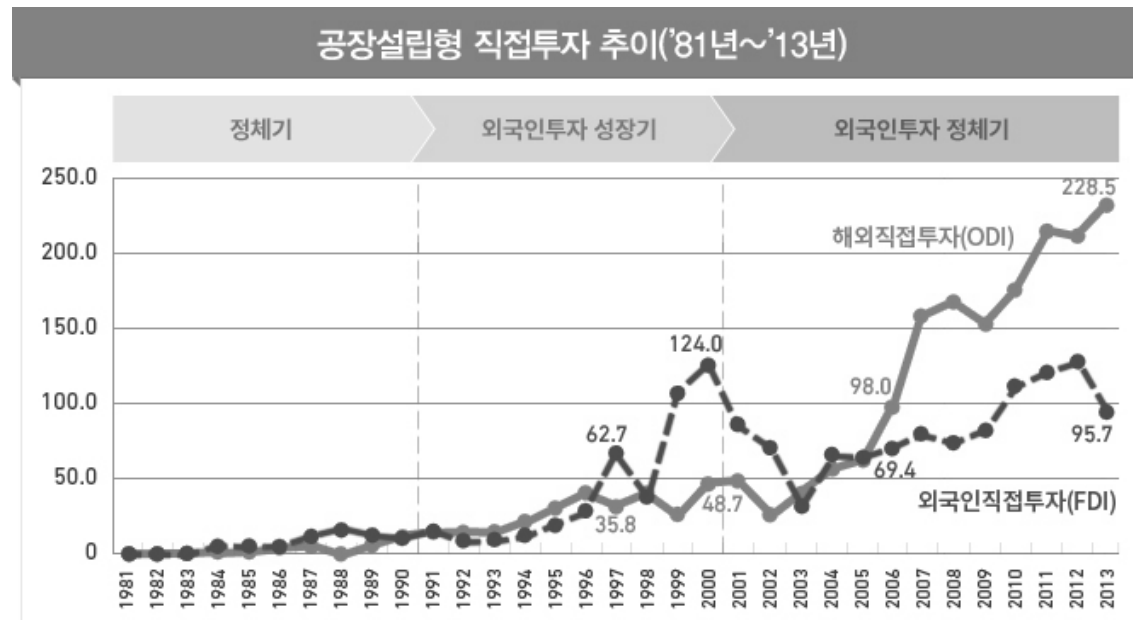


\* 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단위: 억 불)



## 2. 공장설립형(Green Field Investment) 직접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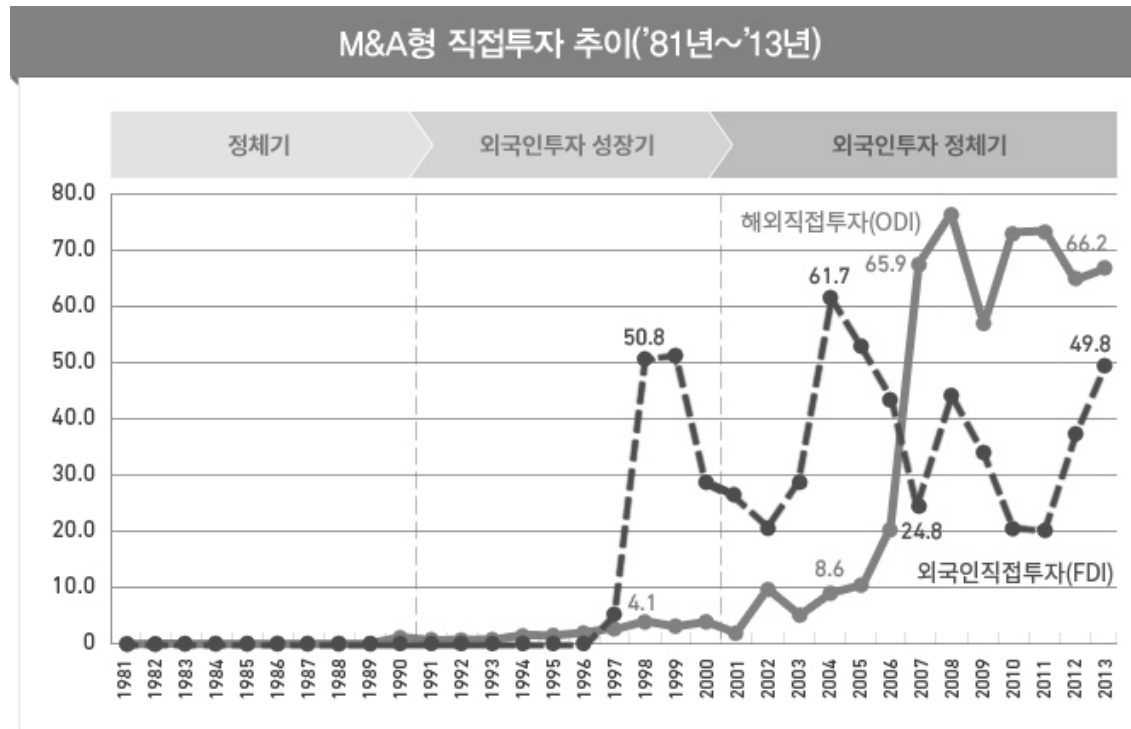
- (1980년대) 해외직접투자(투자금액) 및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금액) 규모의 성장이 거의 없고 정체된 상태
- (1990년대) 해외직접투자의 공장설립형 투자 규모는 연 50억 불 이하로 소폭 성장세인 반면, 외국인직접투자의 공장설립형 투자 규모는 1997년 IMF시기 62.7억 불로 크게 성장해 2000년에 124.0억 불 기록(해외직접투자의 2배 수준)
- (2001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정체한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2006년 98.0억 불로 외국인직접투자(69.4억 불)를 초과, 글로벌금융위기·신흥국불안·유럽재정난 등 어려운 세계경제 여건 속에서도 증가세를 유지해 2013년 228.5억 불을 기록



\* 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단위: 억 불)

### 3. M&A형(Brown Field Investment) 직접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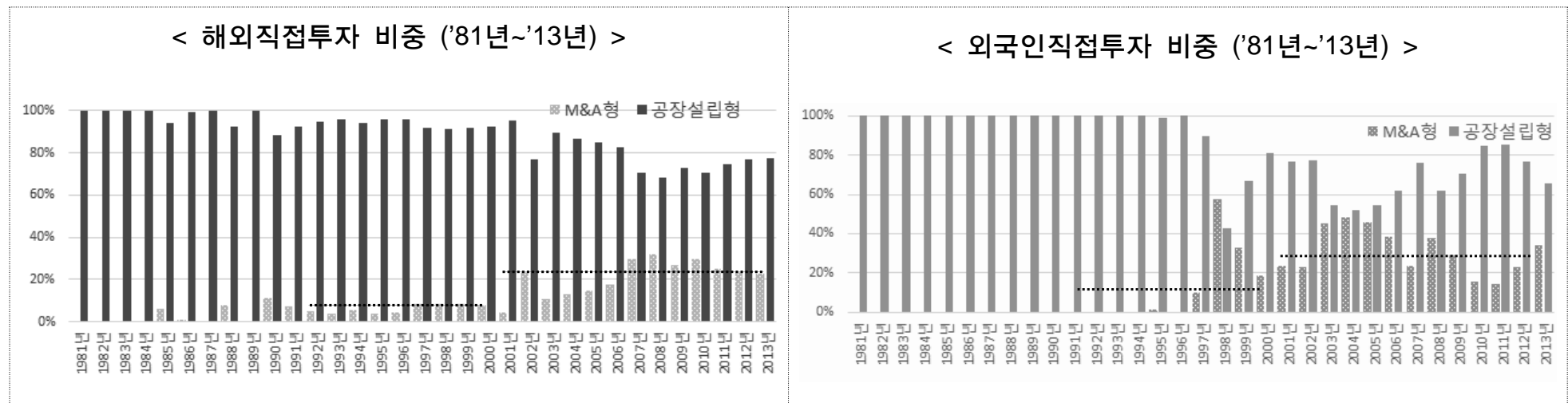
- (1980년대) 해외직접투자(투자금액) 및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금액)가 거의 없는 상태
- (1990년대) 해외직접투자는 연 5억 불 이하, 외국인직접투자도 큰 성장이 없다가 1997년 IMF 이후 M&A형 투자가 급증해 1998년과 1999년도에 50억 불 이상 기록(해외직접투자의 12배 수준)
- (2001년 이후)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2007년 65.9억 불로 급증한 이후 최근까지 연 60~70억 불 유지, 외국인직접투자는 연 50억 불 이하에서 증감을 반복하였으며 2013년에 49.8억 불을 기록하면서 최근 다시 상승세



\* 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단위: 억 불)

#### 4. 공장설립형 및 M&A형 직접투자 비중 비교

- (1980년대)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의 대부분이 공장설립형 투자로 M&A형 투자는 거의 없음
- (1990년대)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M&A형 투자 비중이 10% 미만(평균 6%)이나,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IMF 이후 M&A형 투자가 급증해 1998년도에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7%까지 상승(평균 12%)
- (2001년 이후)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M&A형 투자 비중이 다소 상승하였으나 공장설립형 투자 비중이 70%~90% 이상을 차지(평균 21%),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M&A형 투자 비중 20~40% 정도에서 증감을 반복(평균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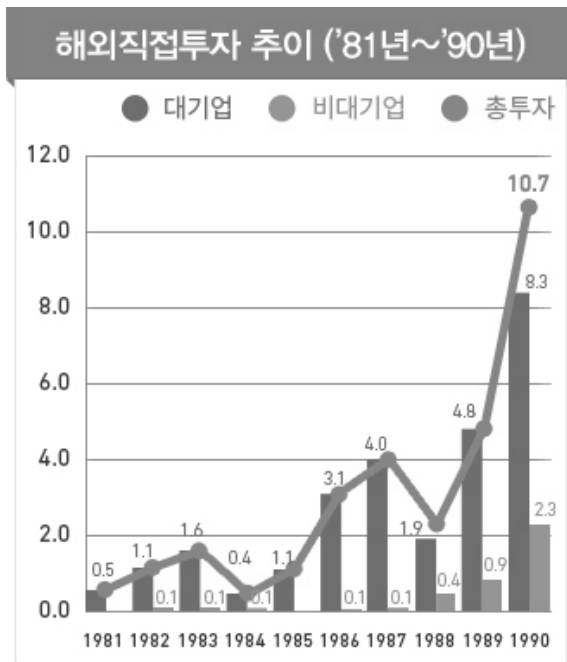
- \* 호황기에는 공장설립형(Green Field) 투자가, 불황기엔 M&A형(Brown Field) 투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 우리나라는 IMF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대규모 구조조정 및 M&A 수요가 있어,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였으나 이후 관철은 매물이 소진되고 투자 매력도가 하락하면서 M&A형 직접투자의 증가세도 둔화되었음

## IV. 기간별 분석

### 1. 1980년대: 직접투자 초창기

#### 1) 해외직접투자 추이 및 유형

-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1981년 0.6억 불에서 1990년 10.7억 불로 10년간 약 18배 성장(연평균 증가율 39%)
- 지난 10년간(1981년~1990년) 투자규모는 연 10억 불 이하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대기업이 36%, 비대기업이 57%로 급성장
- 총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기업이 1981년 93%에서 1990년 78%로 감소, 비대기업이 1981년 7%에서 1990년 22%로 증가



< 전년대비 증감률 >

구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평균
총 투자	103%	46%	-70%	125%	180%	30%	-44%	147%	87%	39%
대기업	107%	42%	-72%	149%	180%	30%	-53%	156%	73%	36%
비대기업	59%	114%	-53%	-41%	163%	25%	254%	109%	162%	57%

(단위: %, 전년대비 & 10년 평균)

< 대기업과 비대기업 투자 비중 >

구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총계
대기업 (비중)	0.5 (93%)	1.1 (95%)	1.6 (92%)	0.4 (88%)	1.1 (97%)	3.1 (97%)	4.0 (97%)	1.9 (81%)	4.8 (84%)	8.3 (78%)	26.8 (86%)
비대기업 (비중)	0.04 (7%)	0.06 (5%)	0.13 (8%)	0.06 (12%)	0.04 (3%)	0.1 (3%)	0.1 (3%)	0.4 (19%)	0.9 (16%)	2.3 (22%)	4.2 (14%)

(단위: %, 해외직접투자 금액 대비 비중)

\* 수출입은행 (단위: 억 불) \*\* 비대기업 = 중소기업, 개인, 비영리단체

○ 1980년대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과 광업을 중심으로 성장

- 지난 10년간(1981년~1990년) 대기업의 총 투자금액 중 제조업 비중은 32%(8.7억 불), 비제조업 비중은 68%(18.1억 불)
- 비제조업 중에서 ▶광업이 대기업 전체 투자금액의 29%(7.8억 불)를 차지, ▶도·소매업도 14%(3.7억 불)로 높은 수준

< 대기업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규모 및 비중 ('81년~'90년) >

구 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총계
제조업 (비중)	0.0 (6%)	0.1 (5%)	0.3 (16%)	0.1 (26%)	0.2 (17%)	0.7 (22%)	1.5 (37%)	0.5 (27%)	2.2 (46%)	3.2 (38%)	8.7 <b>(32%)</b>
비제조업 (비중)	0.5 (94%)	1.0 (95%)	1.3 (84%)	0.3 (74%)	0.9 (83%)	2.4 (78%)	2.5 (63%)	1.4 (73%)	2.6 (54%)	5.2 (62%)	18.1 <b>(68%)</b>
광업	0.0 (0%)	0.6 (59%)	0.4 (28%)	0.1 (28%)	0.7 (65%)	0.8 (27%)	2.2 (55%)	0.6 (34%)	0.8 (16%)	1.5 (18%)	7.8 <b>(29%)</b>
도·소매	0.1 (12%)	0.1 (10%)	0.1 (4%)	0.1 (20%)	0.1 (11%)	0.1 (4%)	0.2 (4%)	0.5 (25%)	0.4 (9%)	2.1 (25%)	3.7 (14%)

(단위: 억 불 / 대기업 직접투자 대비 비중)

- 제조업을 중분류로 살펴보면 ▶'81년~'82년 목재 및 나무제품 ▶'83년~'89년 비금속 광물제품 및 금속 제조업 ▶'90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을 중심(각 연도별 투자금액 1위 업종)으로 성장

연도	업종 중분류	금액	연도	업종 중분류	금액
'81년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0.01	'87년	1차 금속 제조업	1.30
'82년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0.04	'88년	1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0.13
'83년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14	'89년	1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26
'84년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0.05	'90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1
'85년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09		1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0.59
'86년	1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0.43			

(단위: 억 불)

○ 1980년대 비대기업(중소기업·개인 등)의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성장

- 지난 10년간(1981년~1990년) 비대기업의 총 투자금액 중 제조업 비중은 67%(2.8억 불), 비제조업 비중은 33%(1.4억 불)
- 비제조업 중에서는 ▶도·소매업이 10년간 총 투자금액의 13%(0.55억 불)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비대기업 업종별 투자 비중 ('81년~'90년) >

구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총계
제조업 (비중)	0.02 (39%)	0.01 (10%)	0.01 (9%)	0.02 (29%)	0.03 (68%)	0.08 (87%)	0.09 (76%)	0.29 (68%)	0.60 (67%)	1.66 (71%)	2.81 (67%)
비제조업 (비중)	0.02 (61%)	0.06 (90%)	0.12 (91%)	0.04 (71%)	0.01 (32%)	0.01 (13%)	0.03 (24%)	0.14 (32%)	0.29 (33%)	0.68 (29%)	1.41 (33%)
도·소매	0.01 (38%)	0.02 (34%)	0.06 (48%)	0.01 (20%)	0.01 (28%)	0.01 (8%)	0.02 (17%)	0.09 (21%)	0.15 (16%)	0.16 (7%)	0.55 (13%)

(단위: 억 불 / 비대기업 직접투자 대비 비중)

- 제조업을 중분류로 살펴보면 ▶'81년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84년 의복, 가방, 신발, 모피 등 봉제분야 ▶'85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86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등 ▶'87년 의복, 가방, 신발, 모피 등 봉제분야 ▶'88년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89년~'90년 의복, 가방, 신발, 모피 등 봉제분야(각 연도별 투자금액 1위 업종)를 중심으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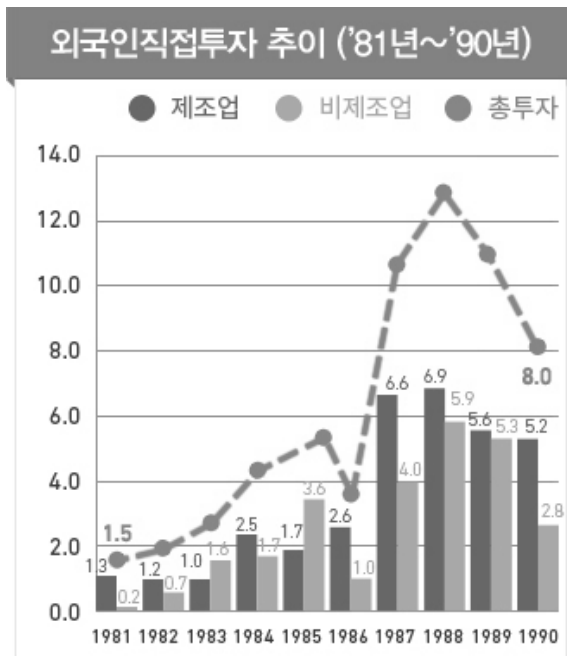
연도	업종 중분류	금액
'81년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0.01
'82년	대표 품목 없음	-
'83년	대표 품목 없음	-
'84년	봉제분야; 의복, 가방, 신발, 모피 등	0.01
'85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0.02

연도	업종 중분류	금액
'86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0.03
'87년	봉제분야; 의복, 가방, 신발, 모피 등	0.03
'88년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0.1
'89년	봉제분야; 의복, 가방, 신발, 모피 등	0.3
'90년	봉제분야; 의복, 가방, 신발, 모피 등	0.6

(단위: 억 불)

## 2)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및 유형

-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1981년 1.5억 불에서 1990년 8.0억 불로 10년간 약 5배 성장(연평균 증가율 20%)
  - 지난 10년간(1981년~1990년) 제조업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은 17%, 비제조업 분야는 31%로 급성장
  - 총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조업이 1981년 84%에서 1990년 65%로 감소, 비제조업이 1981년 16%에서 1990년 35%로 증가



< 전년대비 증감률 >

구 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평균
총 투자	23%	43%	57%	26%	-33%	200%	21%	-15%	-26%	20%
제조업	-10%	-9%	140%	-31%	47%	157%	5%	-19%	-8%	17%
비제조업	197%	123%	4%	110%	-73%	313%	46%	-11%	-46%	31%

(단위: %, 전년대비 & 10년 평균)

< 제조업과 비제조업 투자 비중 >

구 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총계
제조업 (비중)	1.3 (84%)	1.2 (61%)	1.0 (39%)	2.5 (60%)	1.7 (33%)	2.6 (72%)	6.6 (62%)	6.9 (54%)	5.6 (52%)	5.2 (65%)	34.7 (56%)
비제조업 (비중)	0.2 (16%)	0.7 (39%)	1.6 (61%)	1.7 (40%)	3.6 (67%)	1.0 (28%)	4.0 (38%)	5.9 (46%)	5.3 (48%)	2.8 (35%)	26.9 (44%)

(단위: %,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대비 비중)

\* 산업통상자원부 (단위: 억 불)

\*\* 비제조업 = 광업, 금융·보험, 도·소매, 농·임·어업, 건설, 공공·기타서비스 등 제조업 외의 업종

○ 1980년대 외국인직접투자는 제조업과 음식·숙박 업종을 중심으로 성장

- 제조업을 중분류로 살펴보면 ▶'81년~'82년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83년~'84년 반도체, 컴퓨터 등 전기전자 ▶'85년 자동차 및 부품 등 운송용기계 ▶'86년~'88년 반도체, 컴퓨터 등 전기전자 ▶'89년 자동차 및 부품 등 운송용기계 ▶'90년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각 연도별 투자금액 1위 업종)을 중심으로 성장

연도	업종 중분류	금액
'81년	화공; 고무, 플라스틱, 화학제품	0.54
'82년	화공; 고무, 플라스틱, 화학제품	0.38
'83년	전기·전자; 반도체, 컴퓨터 등	0.54
'84년	전기·전자; 반도체, 컴퓨터 등	1.75
'85년	운송용기계; 자동차 및 부품	0.42

연도	업종 중분류	금액
'86년	운송용기계; 자동차 및 부품	0.66
	전기·전자; 반도체, 컴퓨터 등	0.67
'87년	전기·전자; 반도체, 컴퓨터 등	1.99
'88년	전기·전자; 반도체, 컴퓨터 등	2.64
'89년	운송용기계; 자동차 및 부품, 항공기	1.71
'90년	화공; 고무, 플라스틱, 화학제품	1.09

(단위: 억 불)

- 비제조업 중에서는 ▶'81년~'82년 건설 ▶'83년~'85년 음식·숙박 ▶'86년 부동산 임대 ▶'87년~'88년 음식·숙박 ▶'89년~'90년 금융·보험(각 연도별 투자금액 1위 업종)을 중심으로 성장

연도	업종 중분류	금액
'81년	건설	0.15
'82년	건설	0.33
'83년	음식·숙박	1.41
'84년	음식·숙박	0.95
'85년	음식·숙박	3.11

연도	업종 중분류	금액
'86년	부동산 임대	0.37
'87년	음식·숙박	2.04
'88년	음식·숙박	2.71
'89년	금융·보험	2.02
'90년	금융·보험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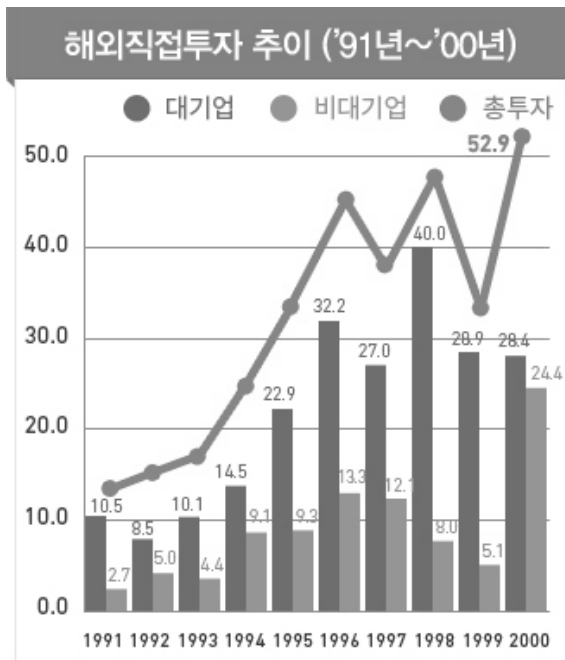
(단위: 억 불)



## 2. 1990년대: IMF 외환위기 및 외국인투자 성장

### 1) 해외직접투자 추이 및 유형

-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1991년 13.2억 불에서 2000년 52.9억 불로 10년간 약 4.5배 성장(연평균 증가율 17%)
- 지난 10년간(1991년~2000년) 대기업 투자규모는 연평균 12% 성장하고 비대기업은 28% 성장
- IMF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급감하여 1999년도와 2000년도에 28억 불대를 기록, 반면 비대기업의 투자금액은 2000년도에 급증(전년대비 374% 증가)하여 총 투자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46%에 이르렀음



#### < 전년대비 증감률 >

구 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평균
총 투자	23%	2%	7%	63%	37%	41%	-14%	23%	-29%	55%	17%
대기업	26%	-19%	18%	44%	58%	40%	-16%	48%	-28%	-1%	12%
비대기업	16%	84%	-11%	106%	2%	43%	-9%	-34%	-36%	374%	28%

(단위: %, 전년대비 & 10년 평균)

#### < 대기업과 비대기업 투자 비중 >

구 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총계
대기업 (비중)	10.5 (79%)	8.5 (63%)	10.1 (69%)	14.5 (61%)	22.9 (71%)	32.2 (71%)	27.0 (69%)	40.0 (83%)	28.9 (85%)	28.4 (54%)	222.9 (70%)
비대기업 (비중)	2.7 (21%)	5.0 (37%)	4.4 (31%)	9.1 (39%)	9.3 (29%)	13.3 (29%)	12.1 (31%)	8.0 (17%)	5.1 (15%)	24.4 (46%)	93.6 (30%)

(단위: %, 해외직접투자 금액 대비 비중)

※ 2000년도에 중소기업(16개 신규법인)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지주회사 등의 설립)' 투자 (14.0억 불) 발생으로 비대기업의 투자비중이 일시적으로 46%까지 급증하였음

\* 수출입은행 (단위: 억 불)

\*\* 비대기업 = 중소기업, 개인, 비영리단체

○ 1990년대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성장

- 1980년대에 비해 제조업 분야 투자가 크게 성장, 10년간('91년~'00년) 총 투자(222.9억 불)에서 차지하는 비중 50% 기록
- 비제조업 중에서는 ▶도·소매업이 10년간 총 투자금액의 24%(53.9억 불)를 차지 ▶광업 비중은 6%(14.4억 불)로 하락

**< 대기업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규모 및 비중 ('91년~'00년) >**

구 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총계
제조업 (비중)	4.2 (40%)	4.1 (48%)	2.2 (22%)	7.8 (54%)	13.3 (58%)	20.8 (65%)	15.0 (56%)	19.5 (49%)	14.2 (49%)	11.0 (39%)	112.1 (50%)
비제조업 (비중)	6.3 (60%)	4.4 (52%)	7.9 (78%)	6.7 (46%)	9.7 (42%)	11.3 (35%)	11.9 (44%)	20.5 (51%)	14.6 (51%)	17.5 (61%)	110.8 (50%)
도·소매	2.1 (20%)	1.3 (15%)	3.9 (39%)	4.3 (29%)	2.6 (11%)	3.6 (11%)	3.6 (13%)	15.7 (39%)	9.5 (33%)	7.3 (26%)	53.9 (24%)
광업	1.1 (11%)	1.5 (17%)	1.4 (14%)	1.1 (7%)	0.7 (3%)	2.1 (6%)	2.2 (8%)	1.0 (3%)	2.1 (7%)	1.3 (4%)	14.4 (6%)

(단위: 억 불 / 비대기업 직접투자 대비 비중)

- 제조업을 중분류로 살펴보면 ▶'91년 자동차 및 트레일러 ▶'92년 1차 금속 및 금속가공제품 ▶'93년~'97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등 ▶'98년 자동차 및 트레일러 ▶'99년~'00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등(각 연도별 투자금액 1위 업종)이 중심

연도	업종 중분류	금액	연도	업종 중분류	금액
'91년	자동차 및 트레일러	0.7	'96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7.6
'92년	1차 금속 및 금속가공제품	1.5	'97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5.7
'93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0.8	'98년	자동차 및 트레일러	7.3
'94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4	'99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6.5
'95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4.8	'00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3.2

(단위: 억 불)

○ 1990년대 비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성장

- 1980년대에 비해 제조업 분야 투자가 크게 성장, 10년간('91년~'00년) 총 투자(93.6억 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 비제조업 중에서는 ▶도·소매업이 10년간 총 투자금액의 14%(13.1억 불)를 차지, 2000년에는 일시적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지주회사 등의 설립)' 투자(14.0억 불)가 급증

< 비대기업 업종별 투자 비중 ('91년~'00년)

구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총계
제조업 (비중)	1.8 (68%)	2.7 (53%)	3.4 (76%)	7.0 (77%)	7.3 (78%)	8.5 (63%)	4.8 (40%)	3.6 (45%)	2.5 (49%)	5.3 (22%)	46.8 (50%)
비제조업 (비중)	0.9 (32%)	2.3 (47%)	1.1 (24%)	2.1 (23%)	2.1 (22%)	4.9 (37%)	7.3 (60%)	4.4 (55%)	2.6 (51%)	19.1 (78%)	46.8 (50%)
도·소매	0.2 (6%)	1.7 (34%)	0.5 (12%)	1.4 (15%)	0.6 (7%)	2.2 (17%)	1.8 (15%)	2.6 (32%)	1.2 (24%)	0.9 (4%)	13.1 (14%)

(단위: 억 불 / 비대기업 직접투자 대비 비중)

- 제조업을 중분류로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의복, 가죽, 신발, 가방 등 ▶봉제분야가 압도적인 가운데,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분야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2000년도에는 가장 높은 투자금액(1.2억 불)을 기록

연도	업종 중분류	금액	연도	업종 중분류	금액
'91년	봉제분야; 의복, 가방, 신발, 모피 등	0.6	'96년	봉제분야; 의복, 가방, 신발, 모피 등	1.7
'92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0.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3
	봉제분야; 의복, 가방, 신발, 모피 등	1.0	'97년	봉제분야; 의복, 가방, 신발, 모피 등	1.2
'93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0.5		자동차 및 트레일러	0.8
	봉제분야; 의복, 가방, 신발, 모피 등	1.4	'98년	의복, 가방, 신발, 모피 등	0.8
'94년	봉제분야; 의복, 가방, 신발, 모피 등	2.5	'99년	봉제분야; 의복, 가방, 신발, 모피 등	0.9
'95년	봉제분야; 의복, 가방, 신발, 모피 등	1.8	'00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3		봉제분야; 의복, 가방, 신발, 모피 등	1.1

(단위: 억 불)

## 2)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및 유형

-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1991년 14억 불에서 2000년 152.7억 불로 10년간 약 10배 성장(연평균 증가율 30%)
  - 지난 10년간(1991년~2000년) 제조업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은 25%, 비제조업 분야는 38%로 급성장
  - 총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조업이 1991년 68%에서 2000년 45%로 감소, 비제조업이 1991년 32%에서 2000년 55%로 증가



< 전년대비 증감률 >

구 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평균
총 투자	74%	-36%	17%	26%	49%	63%	117%	27%	75%	-2%	30%
제조업	82%	-46%	-24%	26%	111%	61%	50%	133%	43%	-18%	25%
비제조업	58%	-16%	72%	27%	13%	65%	192%	-32%	137%	17%	38%

(단위: %, 전년대비 & 10년 평균)

< 제조업과 비제조업 투자 비중 >

구 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총계
제조업 (비중)	9.5 (68%)	5.2 (58%)	3.9 (38%)	4.9 (37%)	10.4 (53%)	16.7 (52%)	25.1 (36%)	58.4 (66%)	83.7 (54%)	68.8 (45%)	286.5 (51%)
비제조업 (비중)	4.5 (32%)	3.8 (42%)	6.5 (62%)	8.3 (63%)	9.3 (47%)	15.3 (48%)	44.6 (64%)	30.2 (34%)	71.8 (46%)	83.9 (55%)	278.1 (49%)
도·소매	1.8 (13%)	2.3 (26%)	3.5 (33%)	3.2 (24%)	3.5 (18%)	5.5 (17%)	29.7 (43%)	16.8 (19%)	17.3 (11%)	20.3 (13%)	103.9 (18%)

(단위: %,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대비 비중)

\* 산업통상자원부 (단위: 억 불)

\*\* 비제조업 = 광업, 금융·보험, 도·소매, 농·임·어업, 건설, 공공·기타서비스 등 제조업 외의 업종

○ 1990년대 외국인직접투자는 제조업과 도·소매 업종을 중심으로 성장

- 비제조업 중에서 ▶도·소매업이 10년간 총 투자금액의 18%(103.9억 불) 비중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제조업을 중분류로 살펴보면 ▶'91년~'96년 고무, 플라스틱, 화학제품 등 화학 분야 ▶'97년 음·식료품 ▶'98년~'00년 반도체, 컴퓨터 등 전기·전자(각 연도별 투자금액 1위-2위 업종)를 중심으로 성장

연도	업종 중분류	금액
'91년	화학; 고무, 플라스틱, 화학제품	5.8
'92년	화학; 고무, 플라스틱, 화학제품	1.4
'93년	음·식료품	0.83
	화학; 고무, 플라스틱, 화학제품	0.77
'94년	화학; 고무, 플라스틱, 화학제품	0.9
'95년	전기·전자; 반도체, 컴퓨터 등	2.4
	화학; 고무, 플라스틱, 화학제품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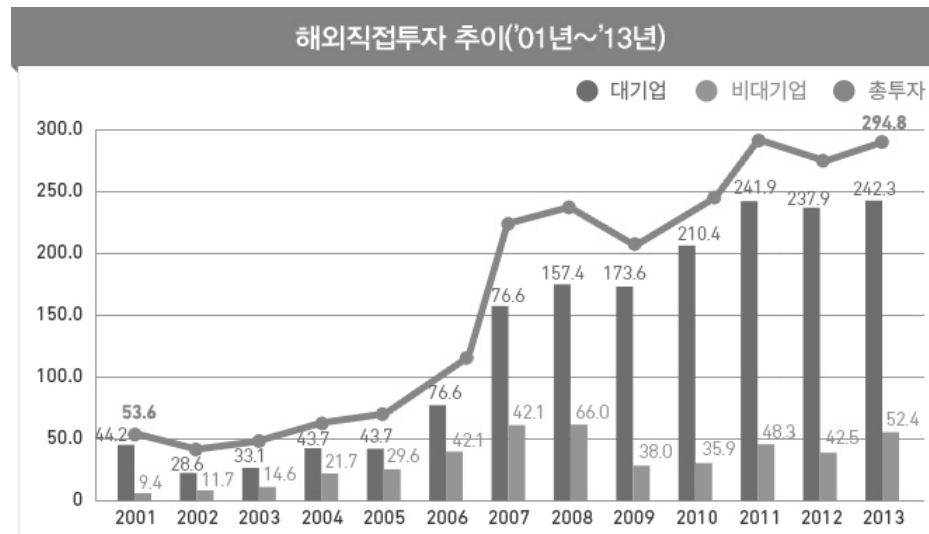
연도	업종 중분류	금액
'96년	화학; 고무, 플라스틱, 화학제품	5.5
'97년	음·식료품	8.8
'98년	제지, 목재	16.5
	전기·전자; 반도체, 컴퓨터 등	14.6
'99년	전기·전자; 반도체, 컴퓨터 등	38.5
'00년	전기·전자; 반도체, 컴퓨터 등	25.8

(단위: 억 불)

### 3. 2001년 이후: 외국인투자 정체, 직접투자 역조현상

#### 1) 해외직접투자 추이 및 유형

-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01년 53.6억 불에서 2013년 294.8억 불로 10년간 약 4.5배 성장(연평균 증가율 15%)
- 지난 13년간(2001년~2013년) 대기업과 비대기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5%로 동일한 성장세를 보임



\* 수출입은행 (단위: 억 불)    \*\* 비대기업 = 중소기업, 개인, 비영리단체

#### < 전년대비 증감률 >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평균
총 투자	1%	-25%	18%	37%	12%	62%	88%	7%	-14%	19%	18%	-3%	5%	15%
대기업	56%	-35%	16%	32%	0%	75%	106%	10%	0%	21%	15%	-2%	2%	15%
비대기업	-61%	24%	25%	48%	36%	42%	57%	0%	-49%	6%	34%	-12%	23%	15%

(단위: %, 전년대비 & 13년 평균)

- 지난 13년간 총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기업은 평균 78%, 비대기업 평균 22%로 큰 변화는 없었음

< 대기업과 비대기업 투자 비중 >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총계
대기업 (비중)	44.2 (82%)	28.6 (71%)	33.1 (69%)	43.7 (67%)	43.7 (60%)	76.6 (65%)	157.4 (70%)	173.6 (72%)	173.2 (84%)	210.4 (85%)	241.9 (83%)	237.9 (85%)	242.3 (82%)	1,706.5 (78%)
비대기업 (비중)	9.4 (18%)	11.7 (29%)	14.6 (31%)	21.7 (33%)	29.6 (40%)	42.1 (35%)	66.0 (30%)	66.1 (28%)	33.8 (16%)	35.9 (15%)	48.3 (17%)	42.5 (15%)	52.4 (18%)	474.2 (22%)

(단위: 억 불 / 해외직접투자 금액 대비 비중)

○ 2001년~2013년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과 광업을 중심으로 성장

- 비제조업 중에서 ▶광업이 13년간 총 투자금액의 24%(405.4억 불)를 차지, ▶금융·보험업도 14%(234.8억 불)로 높음
- \* 광업의 경우 2008년부터 해외직접투자 총 규모의 2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2013년까지 꾸준하게 규모가 증가하였음

< 대기업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규모 및 비중 >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총계
제조업 (비중)	33.7 (76%)	11.2 (39%)	13.8 (42%)	22.8 (52%)	21.8 (50%)	36.3 (47%)	52.5 (33%)	44.3 (26%)	30.8 (18%)	53.4 (25%)	69.2 (29%)	62.7 (26%)	77.6 (32%)	530.1 (31%)
비제조업 (비중)	10.5 (24%)	17.4 (61%)	19.2 (58%)	20.9 (48%)	21.8 (50%)	40.3 (53%)	104.9 (67%)	129.3 (74%)	142.4 (82%)	157.0 (75%)	172.7 (71%)	175.3 (74%)	164.7 (68%)	1,176.4 (69%)
광업	0.8 (2%)	2.2 (8%)	3.3 (10%)	3.2 (7%)	4.8 (11%)	14.4 (19%)	19.1 (12%)	38.5 (22%)	53.1 (31%)	74.4 (35%)	76.4 (32%)	66.2 (28%)	49.1 (20%)	405.4 (24%)
금융 및 보험업	0.4 (1%)	1.9 (7%)	4.7 (14%)	3.1 (7%)	2.9 (7%)	5.8 (8%)	12.8 (8%)	15.8 (9%)	19.6 (11%)	31.1 (15%)	31.2 (13%)	41.3 (17%)	64.3 (27%)	234.8 (14%)

(단위: 억 불 / 대기업 해외직접투자 금액 대비 비중)

- 제조업은 지난 13년간 대체적으로 컴퓨터·통신 등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연도별로는 ▶'01년~'02년 전자부품 ▶'03년 1차 금속 및 금속가공제품 ▶'04년~'07년 전자부품 ▶'08년~'09년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1년 1차 금속 및 금속가공제품 ▶'12년~'13년 전자부품(각 연도별 투자금액 1위 업종)

연도	업종 중분류	금액	연도	업종 중분류	금액
'01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27.5	'07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14.6
'02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11.0
'03년	1차 금속 및 금속가공제품	4.8	'08년	자동차 및 트레일러	8.1
'04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10.3	'09년	자동차 및 트레일러	7.2
'05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5.4	'10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5.7
	자동차 및 트레일러	5.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13.6
'06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10.0	'11년	1차 금속 및 금속가공제품	19.2
	자동차 및 트레일러	7.4	'12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13.7
			'13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35.4

(단위: 억 불)

○ 2001년~2013년 비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 중심으로 성장

- 지난 13년간 비대기업의 총 투자금액 중 제조업 비중은 44%(208.3억 불), 비제조업 비중은 56%(266.0억 불)

< 비대기업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규모 및 비중 >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총계
제조업 (비중)	6.2 (66%)	7.6 (65%)	9.5 (65%)	14.1 (65%)	16.0 (54%)	19.8 (47%)	25.8 (39%)	23.4 (35%)	14.2 (42%)	16.5 (46%)	19.9 (41%)	18.4 (43%)	16.8 (32%)	208.3 (44%)
비제조업 (비중)	3.2 (34%)	4.1 (35%)	5.1 (35%)	7.5 (35%)	13.6 (46%)	22.3 (53%)	40.2 (61%)	42.8 (65%)	19.6 (58%)	19.4 (54%)	28.4 (59%)	24.2 (57%)	35.6 (68%)	266.0 (56%)
부동산 임대업	1.0 (10%)	1.0 (9%)	1.0 (7%)	1.5 (7%)	3.7 (13%)	5.8 (14%)	12.9 (20%)	10.8 (16%)	5.8 (17%)	3.9 (11%)	5.5 (11%)	3.1 (7%)	8.6 (16%)	64.7 (14%)

(단위: 억 불 / 비대기업 해외직접투자 금액 대비 비중)



- 비제조업은 지난 13년간 전반적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01년~'05년 도·소매업 ▶'06년 건설업 ▶'08년~'10년 도·소매업 ▶'11년~'12년 광업 ▶'13년 금융 및 보험업 투자(각 연도별 투자금액 1위~2위 업종) 활발

연도	업종 중분류	금액
'01년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
	도매 및 소매업	0.8
'02년	도매 및 소매업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
'03년	도매 및 소매업	1.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
'04년	도매 및 소매업	2.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5
'05년	부동산업 및 임대업	3.7
	도매 및 소매업	2.6
'06년	부동산업 및 임대업	5.8
	건설업	3.8
'07년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9

연도	업종 중분류	금액
'08년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8
	도매 및 소매업	6.9
'09년	부동산업 및 임대업	5.8
	도매 및 소매업	2.6
'10년	부동산업 및 임대업	3.9
	도매 및 소매업	3.2
'11년	광업	6.8
	부동산업 및 임대업	5.5
'12년	광업	5.4
	도매 및 소매업	3.6
'13년	금융 및 보험업	9.0
	부동산업 및 임대업	8.6

(단위: 억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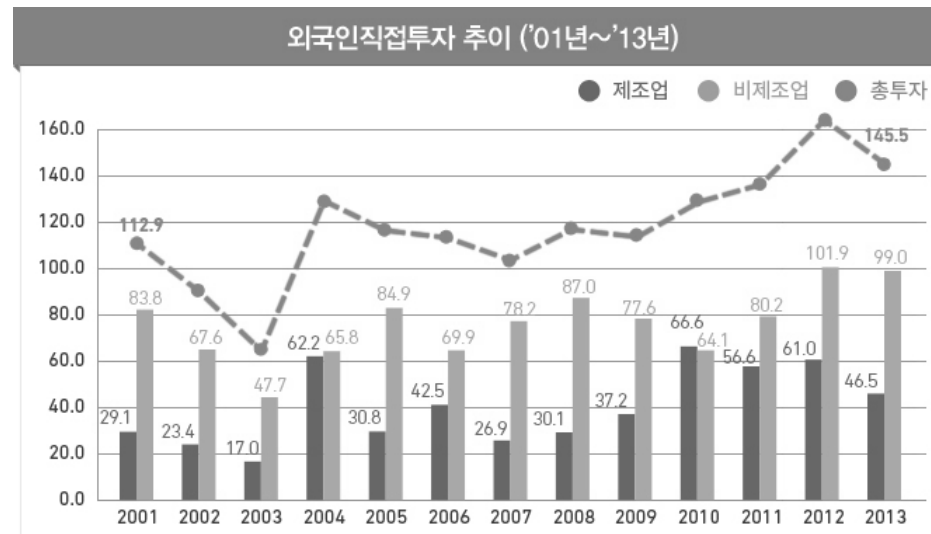
- 제조업을 중분류로 살펴보면 지난 13년간 컴퓨터·통신 등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성장한 가운데 ▶'01~'06년 의복·가방·신발·모피 등 봉제산업 ▶'07년~'13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도(각 연도별 투자금액 1위~2위 업종) 활발

연도	업종 중분류	금액	연도	업종 중분류	금액
'01년	봉제분야; 의복, 가방, 신발, 모피 등	2.4	'08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4.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2.6
'02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1.8	'09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3.1
	봉제분야; 의복, 가방, 신발, 모피 등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1.8
'03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2.1	'10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3.7
	봉제분야; 의복, 가방, 신발, 모피 등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2.3
'04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3.7	'11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3.9
	봉제분야; 의복, 가방, 신발, 모피 등	2.2		자동차 및 트레일러	3.5
'05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3.5	'12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4.0
	봉제분야; 의복, 가방, 신발, 모피 등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2.6
'06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4.2	'13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3.3
	봉제분야; 의복, 가방, 신발, 모피 등	3.6		자동차 및 트레일러	3.0
'07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5.4			
	자동차 및 트레일러	3.2			

(단위: 억 불)

## 2)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및 유형

-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2001년 112.9억 불에서 2013년 145.5억 불로 과거에 비해 성장세 둔화(연평균 증가율 2%)
- 지난 13년간(2001년~2013년) 제조업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은 4%, 비제조업 분야는 1%로 정체



\* 산업통상자원부 (단위: 억 불)

\*\* 비제조업 = 광업, 금융·보험, 도·소매, 농·임·어업, 건설, 공공·기타서비스 등 제조업 외의 업종

### < 전년대비 증감률 >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평균
총 투자	-26%	-19%	-29%	98%	-10%	-3%	-7%	11%	-2%	14%	5%	19%	-11%	2%
제조업	-58%	-20%	-27%	266%	-50%	38%	-37%	12%	24%	79%	-15%	8%	-24%	4%
비제조업	0%	-19%	-29%	38%	29%	-18%	12%	11%	-11%	-17%	25%	27%	-3%	1%

(단위: %, 전년대비 & 13년 평균)

○ 2001년~2013년 외국인직접투자는 제조업과 금융·보험 업종을 중심으로 성장

- 비제조업은 ▶금융·보험업이 13년간 총 투자금액의 20%(305.7억 불) 비중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제조업과 비제조업 투자 비중 >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총계
제조업 (비중)	29.1 (26%)	23.4 (26%)	17.0 (26%)	62.2 (49%)	30.8 (27%)	42.5 (38%)	26.9 (26%)	30.1 (26%)	37.2 (32%)	66.6 (51%)	56.6 (41%)	61.0 (37%)	46.5 (32%)	529.8 (34%)
비제조업 (비중)	83.8 (74%)	67.6 (74%)	47.7 (74%)	65.8 (51%)	84.9 (73%)	69.9 (62%)	78.2 (74%)	87.0 (74%)	77.6 (68%)	64.1 (49%)	80.2 (59%)	101.9 (63%)	99.0 (68%)	1,007.7 (66%)
금융· 보험	17.7 (16%)	10.2 (11%)	16.5 (25%)	32.2 (25%)	39.2 (34%)	30.2 (27%)	22.9 (22%)	46.1 (39%)	12.5 (11%)	9.6 (7%)	17.4 (13%)	21.9 (13%)	29.3 (20%)	305.7 (20%)

(단위: 억 불 /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대비 비중)

- 제조업은 지난 13년간 대체적으로 반도체·컴퓨터 등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연도별로는 ▶'01년 전기·전자 ▶'02년 운송용기계 ▶'03년 화학제품 등 화공 ▶'04년~'09년 전기·전자 ▶'10년 운송용기계 ▶'11년 화학제품 등 화공 ▶'12년 전기·전자 ▶'13년 운송용기계(각 연도별 투자금액 1위 업종) 중심

연도	업종 중분류	금액
'01년	전기·전자; 반도체, 컴퓨터 등	9.0
'02년	운송용기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5.9
	전기·전자; 반도체, 컴퓨터 등	5.2
'03년	화공; 플라스틱, 화학제품	6.9
'04년	전기·전자; 반도체, 컴퓨터 등	29.5
'05년	전기·전자; 반도체, 컴퓨터 등	10.4
'06년	전기·전자; 반도체, 컴퓨터 등	18.3
'07년	전기·전자; 반도체, 컴퓨터 등	9.4
'08년	전기·전자; 반도체, 컴퓨터 등	10.6

연도	업종 중분류	금액
'09년	전기·전자; 반도체, 컴퓨터 등	18.0
'10년	운송용기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24.8
	전기·전자; 반도체, 컴퓨터 등	15.6
'11년	화공; 플라스틱, 화학제품	18.3
	전기·전자; 반도체, 컴퓨터 등	17.5
'12년	전기·전자; 반도체, 컴퓨터 등	13.1
	화공; 플라스틱, 화학제품	12.9
	운송용기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12.6
'13년	운송용기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10.9

(단위: 억 불)

## V. 정리 및 시사점

### 1. 주요 내용 정리

#### □ 지난 30년간 해외 및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 (해외직접투자) 1981년 0.5억 불에서 점차 성장해 2000년에 50억 불대에 진입하였고 2006년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본격화 되면서 ‘해외투자(118.7억 불) > 외국인투자(112.5억 불)’ 투자역조현상 발생, 2013년 현재 294.8억 불 기록
  - \* 해외직접투자 형태는 2000년대 중반까지는 공장설립형(Green Field) 투자가 90% ~ 10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07년 해외투자가 급증하는 시기 M&A형도 동반성장해 전체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 30%가 되었음
- (외국인직접투자) 1981년 1.5억 불에서 점차 성장, 특히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M&A형 투자를 중심으로 급증해 1999년에는 155.4억 불(M&A형 투자비중이 1/3)까지 기록하였으나, 이후 성장이 정체하여 2013년 현재 145.5억 불 기록
  - \* 외국인직접투자 형태는 IMF 외환위기 전까지 거의 100% 공장설립형이었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M&A형이 급성장하여 1998년에 50.8억 불을 기록(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57% 비중),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20% ~ 40% 수준 유지

#### □ 1981년~1990년: 직접투자 정체기

-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연간 10억 불 이하였으나 연평균증가율은 39%로 초창기에 높은 성장률을 보임
  - 대기업: 투자비중 86%, 연평균 증가율 36%로 특히 금속·비금속 가공 등 제조업과 광업을 중심으로 투자
    - \* 제조업 투자비중 32%(금속·비금속 가공 및 1차 금속 제조), 비제조업 투자비중 68%(광업 29%)
  - 비대기업: 중소기업·개인 등 비대기업의 투자비중은 14%, 연평균 증가율은 57%로 1980년대 중반부터 제조업 중에서는 의복·신발·가방·모피 등 봉제분야와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투자 증가
    - \* 1980년대 제조업 투자비중 76%(봉제분야 중심), 비제조업 투자비중 33%(도·소매 13%)

-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최대 12.6억 불(1988년)을 기록하였고 연평균증가율 20%로 금액은 적지만 높은 성장률 기록
  - \* 제조업 투자비중 56%(전기·전자, 화공 중심), 비제조업 투자비중 44%(음식·숙박, 금융·보험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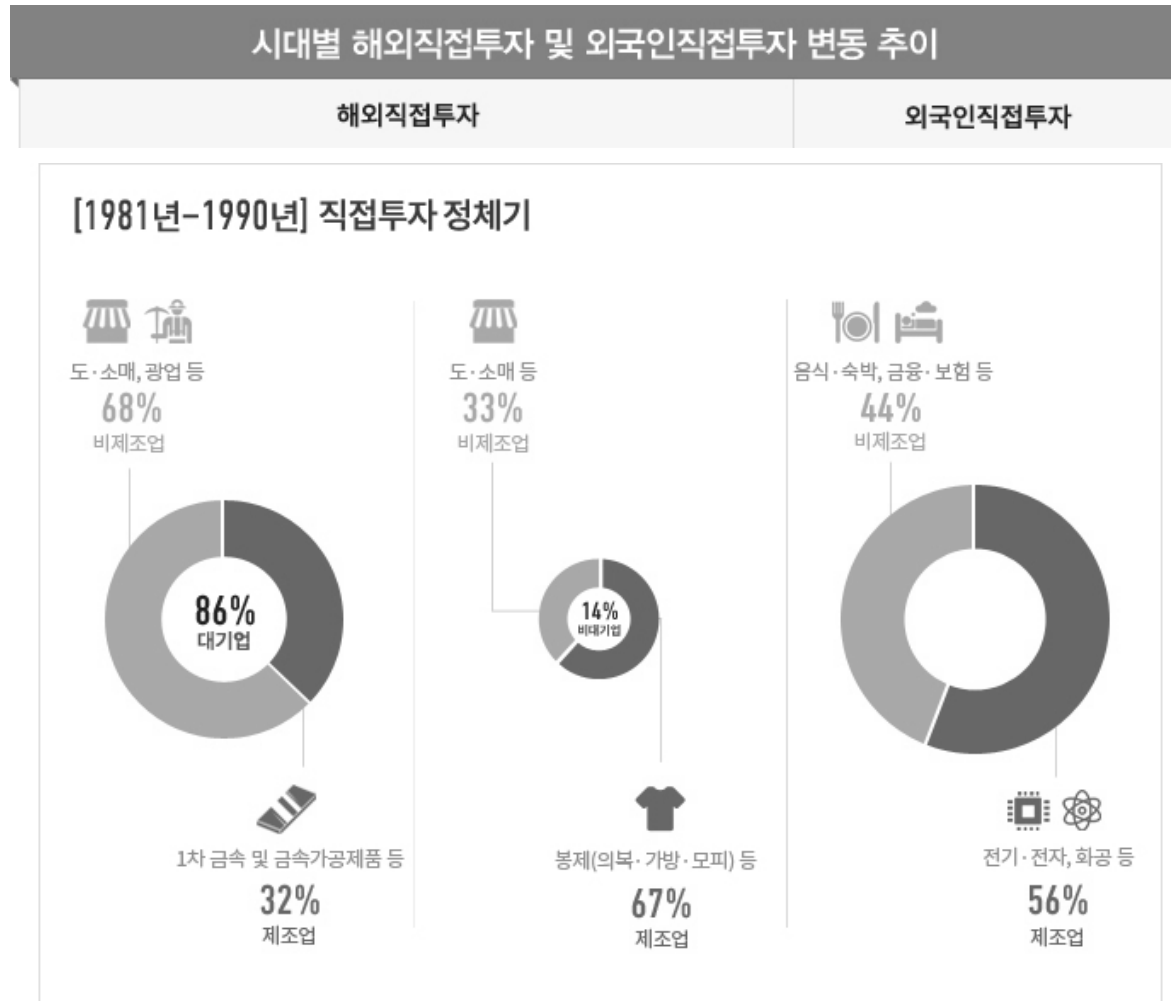
#### □ 1991년~2000년: IMF 외환위기 및 외국인투자 성장

- (해외직접투자) 1991년 13.2억 불에서 2000년 52.9억 불로 성장, 연평균 증가율은 17%
  - 대기업: 투자비중 70%, 연평균 증가율 12%로 특히 전자부품·컴퓨터·통신 등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투자
    - \* 제조업 투자비중 50%(전자부품, 컴퓨터, 통신), 비제조업 투자비중 50%(도·소매 24%)
  - 비대기업: 투자비중 30%, 연평균 증가율 28%로 1980년대 비해 투자비중이 16%p 증가하였고, 제조업 중에서는 의복·신발·가방·모피 등 봉제분야와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투자
    - \* 제조업 투자비중 50%(초반 봉제분야, 후반 전자부품 중심), 비제조업 투자비중 50%(도·소매 14%)
- (외국인직접투자) 1991년 14.0억 불에서 2000년 152.7억 불로 급성장, 연평균 증가율은 30%
  - \* 제조업 투자비중 51%(전기·전자), 비제조업 투자비중 49%(도·소매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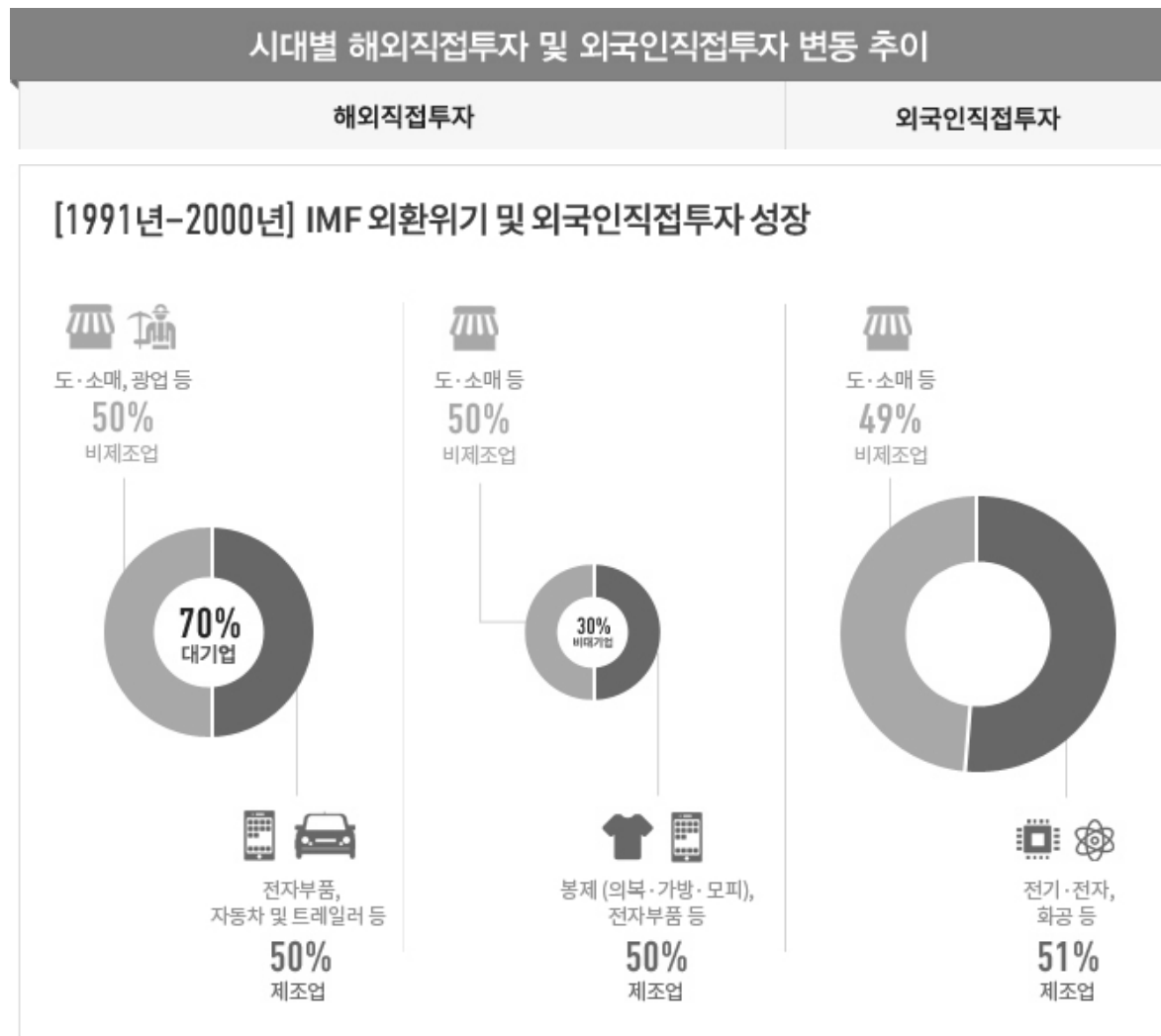
#### □ 2001년 이후: 외국인투자 정체, 직접투자 역조현상

- (해외직접투자) 2001년 53.6억 불에서 2013년 294.8억 불로 성장, 연평균 증가율 15%
  - 대기업: 투자비중 78%, 연평균 증가율 15%로 특히 전자부품·컴퓨터·통신 등 제조업과 광업, 금융·보험업 중심
    - \* 제조업 투자비중 31%(전자부품, 컴퓨터, 통신), 비제조업 투자비중 69%(광업 24%, 금융·보험업 14%)
  - 비대기업: 투자비중 22%, 연평균 증가율 15%로 전자부품 및 봉제분야 등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투자
    - \* 제조업 투자비중 44%(전자부품, 봉제분야), 비제조업 투자비중 56%(부동산·임대업 14%)
- (외국인직접투자) 2001년 112.9억 불에서 2013년 145.5억 불로 성장세 둔화, 연평균 증가율 2%에 그침
  - \* 제조업 투자비중 34%(전기·전자), 비제조업 투자비중 66%(금융·보험업 20%)

※ 요약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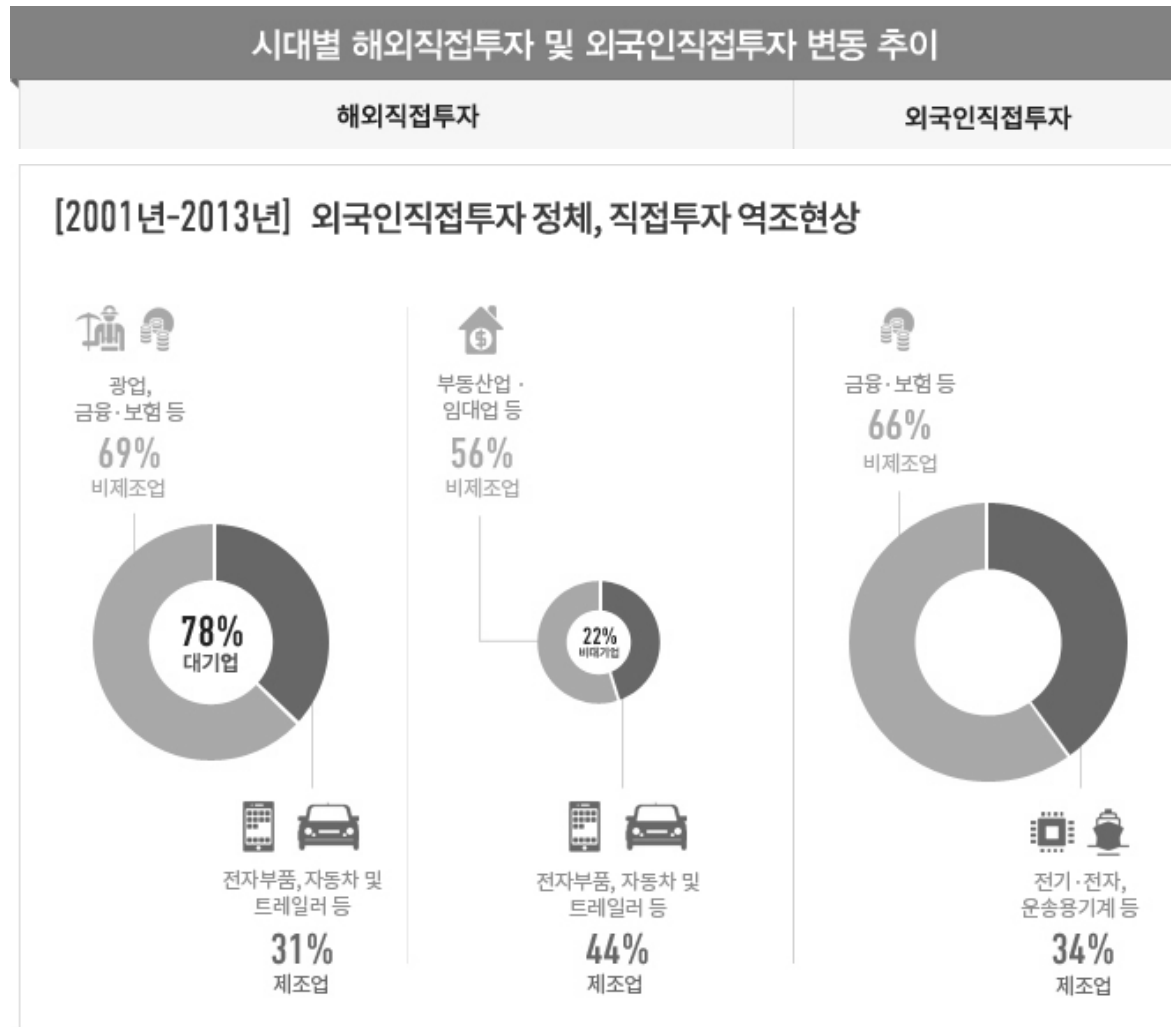


▶ 연평균증가율: 해외투자(39%), 외국인투자(20%) ▶ 누적투자금액: 해외(31.0억 불), 외국인(61.6억 불)



▶ 연평균증가율: 해외투자(17%), 외국인투자(30%) ▶ 누적투자금액: 해외(316.5억 불), 외국인(564.6억 불)





▶ 연평균증가율: 해외투자(15%), 외국인투자(2%) ▶ 누적투자금액: 해외(2,180.8억 불), 외국인(1,537.5억 불)

## 2. 시사점

###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규모 증가 및 업종 변화

- **대기업: 1980년대 1차 금속, 금속제품 및 광업, 도·소매업 → 2000년대 전기·전자, 자동차 및 광업, 금융·보험업**
  - 해외직접투자의 약 80%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은 광업과 금속가공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했다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며 2006년 이후에는 투자규모가 급증, 최근에는 전기·전자, 자동차, 광업, 금융·보험 중심으로 투자
- **비대기업: 1980~90년대 의류·가방 등 봉제분야 및 도·소매업 → 2000년대 전자부품 및 부동산·임대업**
  - 봉제분야 중심의 비대기업 해외투자는 2000년대 이후 대기업(주요 투자분야 전기·전자, 자동차)의 해외동반진출, 시장경쟁력 강화 등의 영향으로 해외직접투자 규모도 증가하고, 품목도 전자부품 및 자동차 부품으로 변동

### □ 외국인투자 양적·질적 저하로 국내경제 부정적 영향 우려

- **외국인직접투자의 제조업 비중 감소, M&A형(Brown Field) 투자 증가에 따른 국내 일자리창출 저해 우려**
  - 외국인직접투자 가운데 제조업 비중은 80년대 56%에서 2000년대 34%로 크게 감소
    - \* 외국인직접투자의 제조업 비중: 1980년대 56% → 1990년대 51% → 2001년 이후 34%
    - 비제조업 비중: 1980년대 44%(음식·숙박) → 1990년대 49%(도·소매) → 2001년 이후 66%(금융·보험)
  - 외국인직접투자의 M&A형 투자금액 및 비중이 해외직접투자보다 높음
    - \* 지난 30년간 외국인직접투자 가운데 M&A형 누적투자금액은 602.4억 불(비중 28%), 해외직접투자 가운데 M&A형 누적투자금액은 555.7억 불(비중 22%)로 규모 및 비중이 높은 수준
-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국내외 정세불안으로 외국인투자 감소, 경쟁국과의 경쟁심화**
  - 2001년 9.11테러, 2003년 이라크전쟁, 북한 핵개발 위협, 2002년 촛불시위 등 국내외 정세 불안
  - 한편, 중국의 고성장이 지속되며 외국인투자가 급증하였고, 싱가포르의 일라이 릴리, 노바티스 등 생명과학 분야 유치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 대만은 소프트웨어 파크를 조성해 외국기업 R&D 센터 유치에 노력

- **최근에는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강성노조, 갈라파고스 규제 등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갈라파고스 규제, 국세청 오락가락 과세,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변경, 부처마다 입장이 다른 환경규제(매경, 8.27)
  - 정책 일관성 부족, 과도한 규제수준, 노사갈등과 반기업정서, 교육 등 사회인프라 부족(대한상의, 1.13)
  - 세무조사 등 과도한 압박, 한국 경기침체, 경제민주화 법안, 통상임금 등 불확실성 증대(한경, 1.8)
- **통상임금 불명확성, 사내유보 과세, 국감 기업인 증인채택 등도 국내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임**
  - 외국기업들은 통상임금이 근로기준법상 명확하지 않아 정부의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사내유보 과세에 대해서도 크게 반대, 국감 시 불필요한 기업인 증인채택 등은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
  - 자동차, 플랜트, 물류 등의 분야에서는 강성노조가 항상 큰 부담으로 작용, 과격한 노조활동으로 문제 발생 시 생산성이 급감하고 고용 조정이 어려움

#### □ **외국인직접투자 성장정체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 마련으로 국내 투자환경 개선 및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였음**
  -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직후, 외국인투자 자율화(외국인 보유 주식비율 및 종목 제한, 부동산 소유 제한), 공기업 민영화(KT, KT&G 등), 정리해고제 도입(노사정협의회 합의하 가능), 사내유보 과세 폐지(IMF 권고사항)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
  -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유치 노력을 강화하였고 구조조정 관련 기업매물도 많아 당시 외국인투자 급증
- **일관성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인 정책(투자이민제도 검토, 인센티브 제공, 수도권규제 완화 등) 마련 필요**
  - 투자이민제도: 외국인이 국내에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 제주특별자치구는 2010년부터 부동산 등에 대하여 동 제도를 시행, 인천경제자유구역도 미분양주택 등에 대해 외국인투자 시 동 제도를 시행할 예정, 여수시도 최근 외국인투자에 대한 동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음
  - 인센티브 제공: 설비투자의 해외이전은 생산비, 현지시장 진출 등 생산성 향상이 주원인이기 때문에 국내 고용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 양질의 인력제공 등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수도권규제 완화: 고급인력 유인, 물류 등 인프라 완비, 인천공항 등 해외로의 이동이 자유로운 수도권 지역에 대해 외국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입지제한 규제로 투자 불가  
ex. 레고공장 유치 실패, 현재 수도권에 위치한 외국기업의 공장신증설 애로
- **외국인의 비제조업(서비스, 금융, 물류, R&D 등) 분야로의 적극적인 국내투자 지원 필요**
  - 국내 기업에 대한 증손회사 지분규제 완화(현행 100% → 비상장 40%, 상장 20%)를 통해 기업 간 합작투자를 보다 원활하게 유도하고, 도소매업, 부동산, 금융보험, 물류 등 다양한 형태의 합작투자 및 M&A투자 지원
  - 환경, 바이오, 대체에너지, 의료서비스, 의약품, 교육, 관광, 기타 서비스 등 높은 교육수준의 양질의 노동력이 필요한 신성장·R&D분야의 투자유치에 노력
- **국내 U턴 등 우리기업의 국내투자 유인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
  - **수도권입지 규제 완화, 기부채납 및 인허가 문제 등 각종 그림자 규제 철폐를 통한 국내 투자환경 개선**
    - 일본 2002년 수도권 내 공장 및 대학 설립 허용, 영국 1981년 수도권 규제 완화, 프랑스 1982년 공장에 대한 과밀부담금 폐지 등 해외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노동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
    -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행사시 기부요청 등 보이지 않는 세금과 규제를 철폐
  - **유통기업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지주회사, 대기업진출 제한 규제 완화 등) 시행**
    - 지주회사 규제 완화: 현행 손자회사 지분을 요건 100% → 40%(상장 20%) 완화 시 국내투자 확대 및 유통 기대
    - 대기업 진출 규제 완화: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 등으로 인해 중국으로 설비투자를 이전하는 등의 사례 발생, 합리적 수준의 중소기업적합업종 품목을 정하고 LED, SW, 식품업 등 대규모 시설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품목 완화
  - **국내기업의 미래 국내투자를 유인(R&D센터, 복합빌딩 등 랜드마크 투자에 대해 지원)**
    - 대규모 R&D센터 건설 사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인허가 간소화, 기부채납 등 각종 부담금 완화 등을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 및 미래 사업투자 지원